

한국 클래식 '젊은 거장' 들 광주 온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공연
1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 김다솔·플루트 조성현
바이올린 장유진·첼로 김민지



바이올라 이한나 첼로 이정란 플루트 조성현 피아노 김다솔

세계가 사랑하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광주로 온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이하 KAS)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공연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지난 2007년 창단된 KAS는 금호영재·영아티스트콘서트 시리즈로 데뷔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손윤음·김선옥·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신지아 등이 이름을 올린 KAS는 금호아트홀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이스트라엘, 제네바, 카자흐스탄, 런던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 초청돼 연주를 펼쳤다. 올해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이정란,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막스 레거와 슈만 등의 음악을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먼저 조성현·장유진·이한나가 막스 레거의 '플루트·바이올린·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 G장조 작품 141a'를 문을 연다. 이어 조성현·이정란·김다솔이 슈만의 '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

위한 환상 소곡집 A단조 작품 88'을 플루트·첼로·피아노 연주곡으로 편곡해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장유진·이한나·김민지·김다솔이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 C단조, '베르테르' 작품60'을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2016년)에서 우승한 장유진은 서울시향,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으로 장유진과 한솔밥을 먹고 있는 비올리스트 이한나는 'NEC 협주곡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함께 무대에 오를 첼리스트 김민지는 '허드슨 벨리 현악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으

며 첼리스트 이정란은 2006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국내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론 귀체르니히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베를린 필 하모니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제1수석을 역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에서 독주회를 가진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게자 안다 국제 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전석 5만원(학생 3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극 '이영녀' 연습 모습.

김우진 대표작 '이영녀' 목포 무대 오른다

19~20일 목포문예회관
빈민들 처참한 생활상 그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사의 찬미'로 천재 극작가 김우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표작 '이영녀'가 목포 무대에 오른다. 목포 대표극단 '예창작 다함'은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희곡으로 꼽히는 '이영녀'를 19·20일 오후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 지난 1920년대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구안을 가진 김우진의 천재성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그는 또 "대본이 당시의 말로 쓰여져 지금의 말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배우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옛 서산들의 빈민가를 무대에 재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1924년 목포, 남편이 도박 빚을 못 이기고 가출한 뒤 목포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영녀는 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기 위해 매음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다. 경찰 서장의 도움으로 공장에 취직하지만 감독관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다가 해고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다. 이영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끝없이 빈곤한 생활을

강요당하며 비인간적인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줄거리다. 희곡은 이영녀의 생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유보한 채 그가 자신의 고통함을 어떻게 지켜 갔는지에 주목한다. 인간의 존재와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함께 던져주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양식을 완벽히 수용한 공연이다. 작품을 연출한 김재영(40)씨는 "빈민가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는 페미니즘, 자본주의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읽어낼 수 있다"면서 "1920년대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구안을 가진 김우진의 천재성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그는 또 "대본이 당시의 말로 쓰여져 지금의 말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배우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옛 서산들의 빈민가를 무대에 재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주인공 이영녀 역을 맡은 김성은(47)씨는 "그녀의 비루한 삶,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에 고뇌하고 고통 받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섬세하면서도 극도의 집중력을 요해 연기하기가 어려웠다. 주인공이지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문화누리카드 이용수기 공모전
광주문화재단, 20일까지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만족도 향상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광주 문화누리카드 이용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통해 느낀 사연이나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상작은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자 6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시상하며 오는 24일 '광주문화누리' 블로그 및 카카오톡 플러스 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모전 참여방법은, 한글파일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gjcfmunhwanu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본인확인 및 상품 수령을 위해 성명, 문화누리카드 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gjcfmunhwanuri)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페이지(http://pf.kakao.com/_xbsfFC) 참조.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연 7만원을 지원하는 카드 전용 가맹점에서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광주시립합창단 18일 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사진)이 오는 18일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공연을 가지고 관객을 찾아가는다. 시립합창단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176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온 가족이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다. 먼저 노르웨이의 젊은 작곡가 올라 아일로의 '고요함: 오 위대한 신비여'를 첼로 솔로 연주와 함께 12성부 합창으로 만난다. 이어 비발디가 작곡한 '영광송'을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사계'가 연상되는 이 곡은 후기 바로크의 대표적 작곡가인 비발디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피에타 고아원 소녀들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소프라노 독창으로, '오 거룩한 밤'을 바리톤 독창으로 부른다. 또 합창단은 라트비아 출신 작곡가 에릭스 에센발츠의 '온리 인 슬림'을 소프라노 솔로와 호흡을 맞추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선보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415-520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국 최초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호남·제주권 우수사례 꼽히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전국 문화재단 최초 교육부 선정 '제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선정된 체험기관 단체 중 호남·제주권 우수사례로 꼽히는 등 프로그램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문화와 예술 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해온 광주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진로체험 인증제를 통과한 기관이 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교육'은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아트 작가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로탐색 강의' 프로그램

이다. '미디어아트 체험교육'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일선학교 201개소 1만 1078명이 참여했다. '진로탐색 강의'는 25회로 걸쳐 2851명 학생들이 예술가와 전문가를 만났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교육청 연계 '일발고'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드림러너' 운영기관에 지정됐다. 학생들은 '홀로그램극장, 미디어놀이터, 미디어338,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등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들을 탐방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도 '미디어아트 체험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62-670-7453-7455/ '뽕길'(www.ggoomgil.g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강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광진 장경수 김동준 우정민 윤소이 김걸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

CHANNEL, BM CULTURES, contents, 충청북도, FCM 광주광역시, 카페티아모, COSTIX, WESTWOOD, E2, Rakuten Viki